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결의 목표를 부단히 보충갱신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는 한번 세워놓는데 다시 말고 끊임없이 보충갱신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 참가한 단위들에서 결의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보충할 내용이 제기되면 제때에 보충하며 새롭게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근거하여 결의목표를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데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한다.

작전을 잘하도록 한것은 옹당한 결실을 가져왔다. 대중운동에서 고정불변한 결의목표만 있을 수 없다. 결의목표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를 옮겨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보충갱신하여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숙천군당 위원회에서 이바내단위들의 결의목표를 제때에 보충갱신하도록 당부지도를 잘하고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만 할 일이다.

군당위원회는 군의 특성에 맞게 올해 알곡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안아오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농장들에 결의목표를 보충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일꾼들이 현실에 나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올해의 알곡생산에 비롯한 전반적인 농업생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를 깊이 연구하도록 하였다.

농장들에 간 일꾼들은 사무실에서 몇명의 실무일꾼들의 말만 듣는것이 아니라 농업생선의 직접적담당자인 대중의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에 수많은 혁신적인 안들을 찾아내게 되었다.

판천농장에 간 군당위원회 회 한 일꾼은 어느 한 구역에 있는 하천정리단 잘하여도 수십정보의 새방을 짓고 천수백정보의 부지땅을 더 단정하게 보호하여 많은 알곡을 생산할 수 있다는 좋은 안을 찾게 되었다.

한편 여러 농장들에 간 일꾼들은 올해의 모내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끝내려면 결정적으로 부족되는 모내기계와 원동기를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하며 지난해의 교훈에 비추어 군안의 모든 농장의 농산작업반들에서 앞선 단위의 경험을 배워오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해야 한다는 건설적인 의견도 들게 되었다.

일꾼들은 이외에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부지땅의 지력을 더욱 높이며 농장마다 종합적인 축산기지를 건설하여 여러가지 짐승을 많이 길러 식생활도 높이고 수입도 높이는 등 올해 농업생산에서 양을 일으킬수 있는 대중의 의견을 군당위원회에 내놓게 되었다.

군당위원회는 대중속에서 제기된 혁신적인 안들을 종합한

데 기초하여 해당 단위들에서 그 내용을 결의목표에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결의목표에 현실적요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지방공급과 도시경영 등 인민생활문제와 직결된 모든 단위들에서의 결의목표도 이런 방법으로 보충갱신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단위들에서 보충갱신된 결의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당부지도를 하고있었다.

군당책임일꾼은 단위들에서 보충된 결의목표가 어떻게 집행되고있는가에 대하여 일꾼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현지에 나가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면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판천농장에서 벌어진 하천정리공사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된것,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모내기 기계를 원동기를 마련한것을 비롯한 많은 성과를 일꾼들이 결의목표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역할을 다해온것과 많이 반면

되어있다.

군당위원회는 단위들에서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 목표실현을 더 잘 떠맡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총화와 평가 사업에 옹당한 관심을 돌려오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단순한 실무적사업으로가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데로 광범한 대중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적극 불러일으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정치적문제에 보았다.

결의목표수행에 대한 총화는 반드시 제때에 하여야 실효를 거둘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단위들에서 결의목표가 수행되며 동시에 총화까지 하였으며 평가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서 좋은 작용을 하였다.

경험은 매 시가지에서 당정책적문제들이 대중운동에 정확히 반영되어 철저히 집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단위의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시훈

두장의 사진에 깃든 사연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판청로 들끓고있던 며칠전 문천탄광을 찾은 우리는 이곳 탄광일꾼들이 내놓은 두장의 사진앞에서 눈길을 매지 못했다. 한장은 오대봉에 건설하던 최바둑다리를 찍은것이었고 다른 한장은 탄광에서 새로 건설한 콘크리트다리를 찍은 것이었다.

대조적인 두 사진을 놓고 문화혁명운동과정에서 있었던 지난해의 경험적사실을 들려주는 일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심과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더욱 다그치는데 있습니다.》

대조적전투가 험하게 벌어지던 지난해 8월 어느날 초급일꾼들에게는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결의목표를 다시금 새롭게 갱신하기로 하였다.

탄부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혁명결의목표와 탄차게조를 비롯한 기술혁명결의목표의 내용들은 함으로

반대한것들이었다.

한 조향, 한 조향이 단위의 발전과 관련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었으므로 일꾼들은 누구나 만족해하였다. 하지만 문화혁명결의목표에 반영된 다리공사에 대한 조향에서만큼은 머리를 긁적거리는 일꾼들이 있었다. 생산이 긴장한 때 언제 다리공사가 세워지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일꾼들의 협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게 되었다.

《물론 자체의 힘으로 반대한 다리공사를 한다는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방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일꾼들의 심장속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뺀 초급일꾼은 탄광의 일꾼들로 돌격대를 조직할것을 제기하였다. 대교조시대 혁명의 지휘선전담개 생산에서도 다리건설에서도 일꾼들이 두렵, 세뻐의 말안간고 편하고 절절히 호소하는 초급일꾼의 말은 일꾼들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탄광에서는 일꾼들이 다리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의목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단위의 전반사업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탄광의 일꾼들이 낫에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하고 밤에는 밤마다 불뭉치를 추켜들고 다리공사를 벌리고있다는 소문이 퍼져 자은 탄광마을이 떨쳐나섰던

것이다.

탄부들은 탄광의 일꾼들이 자기들과 지식들을 일해 어려서 건설공사를 맡아안고 뛰고 있는데 실제 덕을 보게 될 자기들이 어떻게 구경만 하겠는가 하고 하면서 저저마다 많은 유훈자들을 들고 전투장으로 달려나왔다. 어려운 모퉁이마다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앞장서서 열여섯은 일꾼들의 투쟁모습은 그대로 탄부들과 당원들을 대교조로 부르는 습에는 정치사업이었다. 그것은 석탄생산에서도 보다 큰 혁신적양이 일어나도록 추동했다. 탄부들속에서는 저저마다 《석탄!》, 《석탄!》 하면서 한층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대중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많은 혁신적사실이 이루어져 갱신된 결의목표의 내용들은 하나하나 수행되어나갔다. 그 과정에 자체의 힘으로 콘크리트다리를 훌륭히 건설하고 수심대의 탄차들을 만들어 냈으며 전진쟁, 청년쟁, 전차쟁, 승리쟁에서는 높이 세운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두장의 사진을 놓고 탄광일꾼이 들려준 이야기가 우리에게 준 여운은 참으로 컸다. 혁명의 지휘선전들이 우리 일꾼들이 진진하는 대의의 앞장에서 앞장을 메고 힘차게 내달릴 때 모든 전투장마다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른다는것을 우리는 다시금 새겨안을수 있었다.

본사기자 최영길

속천군당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화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는 올해 들어와서만도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에서 공동사설과 당장전 65쪽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호에서 제시된 과업명령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정책적문제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결의목표들을 부단히 보충하고 갱신하도록 하였다.

군안의 당조직들에서 결의목표 제때에 보충하기 위한

속천군당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화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는 올해 들어와서만도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에서 공동사설과 당장전 65쪽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호에서 제시된 과업명령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정책적문제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결의목표들을 부단히 보충하고 갱신하도록 하였다.

군안의 당조직들에서 결의목표 제때에 보충하기 위한

속천군당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화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는 올해 들어와서만도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에서 공동사설과 당장전 65쪽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호에서 제시된 과업명령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정책적문제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결의목표들을 부단히 보충하고 갱신하도록 하였다.

군안의 당조직들에서 결의목표 제때에 보충하기 위한

속천군당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화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는 올해 들어와서만도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에서 공동사설과 당장전 65쪽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호에서 제시된 과업명령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정책적문제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결의목표들을 부단히 보충하고 갱신하도록 하였다.

군안의 당조직들에서 결의목표 제때에 보충하기 위한

속천군당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화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당위원회는 올해 들어와서만도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에서 공동사설과 당장전 65쪽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호에서 제시된 과업명령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정책적문제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결의목표들을 부단히 보충하고 갱신하도록 하였다.

군안의 당조직들에서 결의목표 제때에 보충하기 위한

실천을 통해 높여준 창조열의 사업에서

평양구두공장 초급당위원회

올해의 총공세에 떨쳐나선 평양구두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참담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데 대한 시대의 요구에 발을 맞추어 대조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새하게 지퍼올리고있다.

이들은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제품개발과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벌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기술혁명결의목표수행에서 높은 실적을 이룩하도록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적극 떠맡아준 초급당위원회 일꾼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세가 높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올은 방법론을 세우는것은 어떤 사업에서나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들에 비추어 사상혁명, 문화혁명과 함께 기술혁명결의목표들을 새롭게 보충갱신하고 장조의 자욱을 힘차게 새겨나간 지난 1월이 아닐까싶다.

년중 수행하여야 할 기술혁신과제들이 아홉차고 방대한데 맞게 그 진척정형에 대하여

자주 알아보던 초급당비서 주기우동무는 하나의 사실을 주목히 스칠수 없었다.

지배인 리동찬, 기사장 박용찬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이 기술혁명결의목표의 성과적수행을 위해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완강하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반면에 일부 사람들속에서 애로와 난관이 거듭되고 고하여 치우치는 달리 기술혁신과제수행을 신심있게 밀고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던것이다.

초급당일꾼에게는 불현듯 지난해 100일전투때 공장에서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도 기술혁신에 큰 힘을 넣어 자체로 만들어 어렵다던 한 제품을 성과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던 일이 세삼스럽게 떠올랐다.

기술혁신과제를 파우하는 근본요인은 바로 사상이다.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송풍기 자력.

이런 결실을 안고 그는 당조직들에서 기술혁신전투가 벌어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기술자, 기능공들의 심리에 맞게 정치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초급당일꾼은 기술혁신과제수행에서 진통을 겪고있는 기술자,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공장에 어려웠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내용을 뜨겁게 상기시켜주면서 창조적열의를 최대한으로 발양해나가고자 적극 이끌어주었다.

공무직장과 체화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 설계실 설계원들이 합심하여 한 섬비의 부분품을 제작하던 때의 일이였다.

그들이 부분품제작에 필요한 어느 한 재료를 얻지 못해 안타까와한다는것을 알게 된 초급당일꾼은 그것을 함께 책임진 팀장에게 피타는 사색과 탐구를 거둬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자재로 해결할수 있는 혁신적인 안을 내놓게 되었다. 결과 일부 사람들이 수입에 의존할수밖에 없었다고 여기던 그 부분품이 훌륭히 제작되었다.

이바에 그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2월 13일까지 9종에 근 20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세운것들을 새로 제작하는 등 기술혁명결의목표에 반영된 내용들중에서 많은 뜻을 해게하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올은 묘술과 방법론을 가지고 올을 기술혁신과제수행에 힘입어 떨쳐나가는 이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세는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리정수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결의목표



은천군 덕양 초급일꾼들이 대외의 앞장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결의목표

은천군 덕양 초급일꾼들이 대외의 앞장에서

대한군운산리당위원회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결의목표

대한군운산리당위원회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결의목표

대한군운산리당위원회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결의목표

절약이자 증산이다. 한공수의 로력, 한W의 전력, 한방울의 연유도 극력 아껴쓰자!

전기절약투쟁을 힘있게 전력을 효과적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절약은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와 인민을 위한 사업이며 자신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구호에 지적된바와 같이 전기의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며 광명의 원천이다. 전기가 많아야 본격적인 상승단계에 들어선 나라의 경제를 더 빨리 비약시킬수 있을뿐 아니라 인민경제보다 분명하고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줄수 있다.

전제 인민이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10월의 경속광장을 향하여 총돌격하고있는 지금 나라의 이름은 못마더에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력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는데서 전기절약사업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인 령도밑에 나라의 곳곳에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발전설비들의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다그쳐 전력문제해결의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다.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과 함께 전기를 극력 아껴쓰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고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기절약사업이 총공세의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한W의 전력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부문과 단위에 할당된 전력소비기준에 따라 생산과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현실은 어디서나 전력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나라에서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능력과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타산과 치밀한 계획밑에 전력을 공급하고있다. 만일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많아지면 발전설비들의 가동에 지장을 주면서 전력의 질과 생산량이 떨어지게 된다. 매개 단위와 일터, 가정들에서는 전력을 초과리용하거나 낭비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력공급에서 계획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해당 부문 일꾼들은 배당된 전력을 자기 분야와 지역의 생산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 를 가지는 단위들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원칙에서 전력분할을 바르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들사이, 공장, 기업소들사이, 생산공정들사이의 교차생산을 짜고들며 한W의 전력이라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적극 찾아나가야 한다. 교차생산조직에서 중요했는 전력 소비가 많은 공장들에 대한 부하조정을 잘하여 단위시간당 전력소비를 극력 낮추며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비해 에너지절약에 들어는 품이 훨씬 경제적이라는데로부러 이 분야에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우리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배편을 쥐겠다는 위대한 포부와 확고한 필성을 가지고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나가야 한다.

모든가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전기절약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긴장한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고 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게 될것이다.

공동구호판권을 위한 총공적전의 불길이 새 차게 타오르세

공동구호판권을 위한 총공적전의 불길이 새 차게 타오르세

공동구호판권을 위한 총공적전의 불길이 새 차게 타오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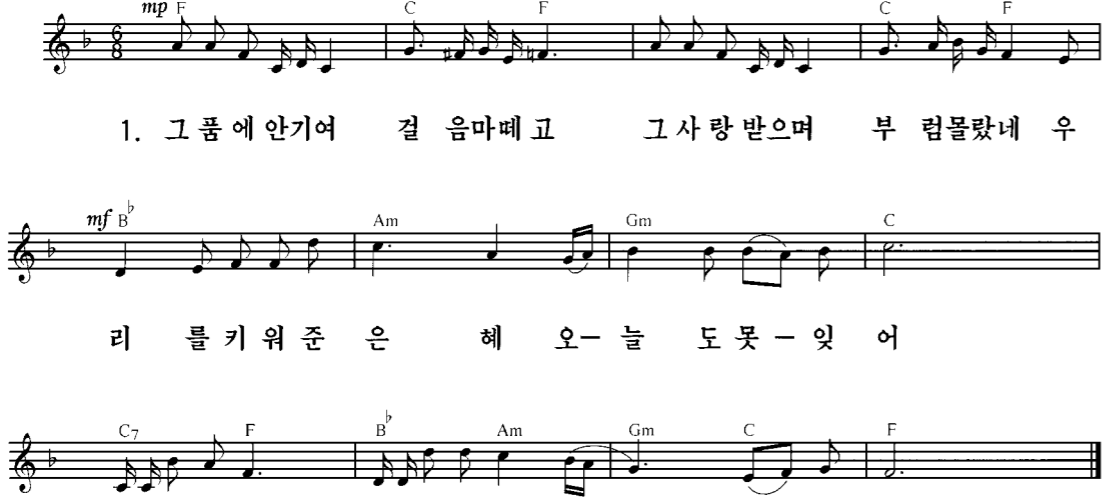
공동구호판권을 위한 총공적전의 불길이 새 차게 타오르세

공동구호판권을 위한 총공적전의 불길이 새 차게 타오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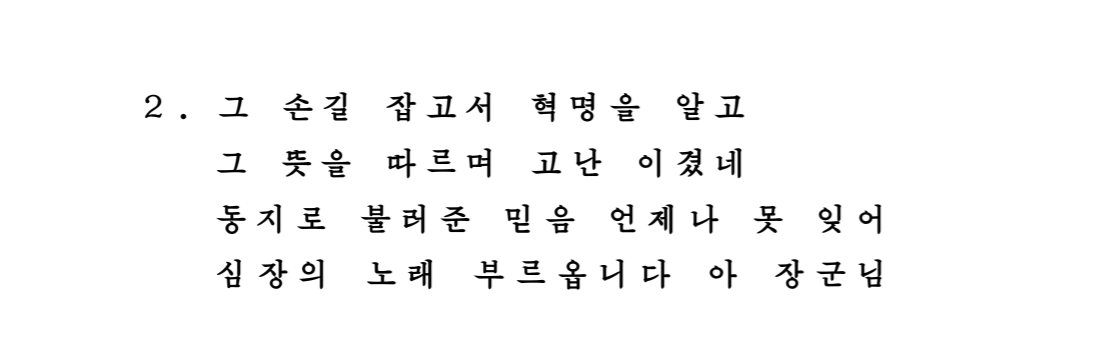
내 한생 따르는 품

뜨겁게 (♩ = 88)

작사, 작곡 오문선



리를 키워준 은혜오늘도 못 잊어



심장의 노래 부르읍니다 아 장군님

3. 동산에 뜨는 해 서산에 뜨고 이 몸이 열백번 다시 산대도 장군님 따르는 마음 변함 없으리 맹세의 노래 부르읍니다 아 장군님

내 나라에 꽃피는 고유하고 우수한 민속전통

혁명적대교조의 불길놀이 총진군 의 장엄한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내 조국의 밝은 매일을 축복하듯 은은한 빛을 뿌리며 밤에도 등근 달이 웃었다.

정월대보름명절을 맞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고유한 민족의 향취 가 한껏 넘쳐나고있다.

수도 평양과 지방의 거리와 마을 들, 공원, 유원지를 비롯한 곳곳에서는 학생소년들과 민족오차림의 귀여운 어린이들이 연떡우기, 팽이 치기, 제기차기, 줄넘기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있으며 기관, 기업소들과 협동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로 흥성이고있다.

취형창 밝은 달빛아래서 자기, 옷 놀이가 한창일 때 텔레비전과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흥겨운 민요가락들은 마음마다, 거리마다 민족적인 정서와 흥취를 더욱 돋우어주고있다.

민족로리전문식당들과 각지 교양 봉사당들에서는 전통적인 민족음식들이 손님을 기다리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거쳐 내려오는 우리의 민족전통이 선진시대와 더불어 더욱 활짝 꽃피고있는 내 조국의 모습은 그 얼마나 긍지롭고 자랑스러운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고유하고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민족의 향취 넘치고 달맞이기를 안겨주는 정월대보름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뜻을 되새겨주는 뜻깊은 날이 있다.

몇해전 2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 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보름이 어떤 날인지 알고 지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정월대보름의 유래도 설명해주시고 정월대보름의 풍속도 수수하게 이야기 해주셨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전해오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속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고나 드쁘게 말씀하시였다. 계속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께서는 사람들에게 정월대보름이 어떤 날이며 무슨 음식을 만들어먹는가 하는것과 같은 상식들도 알려주며 달력이나 탁상일력에도 정월대보름이라고 쓴 것이 없는데 써넣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에 받들려 다시 태어난 정월대보름명절이다.

어찌 정월대보름명절뿐이라. 둘러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민족명절들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는가.

정월대보름, 추석을 국가적명절로 뜻깊게 쇠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런 날에는 우리 인민들이 어떤 음식을 해먹고 어떤 유희오락을 놀았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깨우쳐주시면서 이렇듯 고유한 우리 식으로 고쳐 부르도록 하여주시고나 다음이 나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에 민족으로 내려오는 명절이 몇이나 되는가고 물으시던 일이 있었다.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사람에게는 추석날에는 산소에 가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풍습들이 있는데 이런 풍습들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풍속은 유류에 대하여서까지 설명해주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장군님께서 민족명절들과 관련하여 주신 가르치심과 위해주시 조치들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를 선진시대에 와서 활짝 꽃피워 조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온 세상에 떨치시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이 담겨져있었다.

우리 장군님의 그 애국애족의 뜻에 떠받들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수도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 방방곡곡에 수많은 《조선오침》들이 새로 더 생겨나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 모란봉의 높고낮은 봉우리 들을 울리며 《대항소상》전국민족 씨름경기의 금소방울소리가 유성하 게 들려오지 않았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선군령도의 것처럼 바쁘신 길에 수도 풍속 민속음식평의회에 출품 된 음식물의 가지수와 질을 헤아려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 보도소식에 접하던 그날.

세죽자의 자들의 반공화국고급압 살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시기 나 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 건설권리 머니만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식생활 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이렇 거 중요시되고 걸음걸을 손잡이 그 길이 어주시였는지 그 길은 뜻이 다시금 우리의 심장을 울린다.

언제나 민족적전통과 관련한 문제 들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그 계승 발전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걸음걸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선진시대를 주체성과 민족성이 더 욱 활짝 꽃피는 시대로 빛을 뿌 리게 한 고귀한 원천으로 되였다.

하기에 정월대보름명절을 맞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 한 민족으로 되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이 새차게 파도치는것이다.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르는 달밤은 밤 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정서에 잠 기운 한다. 정월대보름달을 바라보며 우리 인민은 무엇을 생각하는것인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보름달을 좋아하고 사랑하였으며 평안같은 동근달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기원 하는 풍습이 있었다.

해마다 윤력 1월 15일을 대보름 명절로 쇠어온 우리 인민의 오랜 풍습에는 새해의 행운과 풍년을 바 라는 소박한 념원이 담겨져있다. 대보름날 저녁이면 온 동리가 뿔뿔 나 뛰노는 듯 울라 웃어오는 평안 같은 동근달을 구경하였고 여러가

지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하며 하루 밤을 의있게 즐기곤 하였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에는 대보름달에 없는 소박한 소원마저 이룰수 없었던 우리 인민이다.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다르다는 노래의 구절도 잊었이 나 라없는 그 세월에는 달이 아무리 밝아도 수만많은 인민의 가슴속엔 한가닥의 빛도 흠뻑지지 못했다. 달그대로 정월대보름달은 식민지인족의 불운한 운명을 통탄하는 슬픔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바로 그러하던 정월대보름달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 땅,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 가시는 사회주의조국명우에 얼마나 크나큰 환희와 행복의 밝은 빛을 뿌려왔던가.

정월대보름명절을 맞고 보내는 생활풍습은 오늘 선진시대에 사는 인민의 사상경계에 맞게 새로운 모습으로 꽃피고있다.

선군조선의 밝아오는 밝은 빛을 뿌리며 떠오르는 동근달을 바라보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장군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도 빛나고 내 조국의 밝은 매일이 있다는 드립없는 신념과 확신이 더욱 굳게 다져지고있다.

저 달빛이 비쳐가는 대교조전통 들을 비롯한 조국 땅 그 어디에서나 절절한 하나의 소원, 심장의 맹세가 새차게 파도친다.

“달아 달아, 더 밝게 비쳐다오. 위대한 장군님 해쳐가시는 강행군길의 자유자율!”

우리 장군님 인제주시민족의 기 상과 슬기를 힘있게 파시하며 이 땅 우에 기어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 세우시옵시다.

정월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 를 만발케 떨치고 버티고 나가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솟아오를 내 조국의 앞날을 뜨겁게 축복하듯 밤하늘의 동근달이 더욱 밝은 빛을 뿌린다.

본사기자 강진형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정월대보름은 우리 인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즐겨 쇠는 명절의 하나이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우리 인민들은 벌써 삼국시기에 정월대보름을 쇠었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민족적으로 전래되는 좋은 관습들에는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적품모와 정서가 반영되어있습니다.”

면의 산이나 다리, 언덕, 루정 등에서 달맞이를 하면서 사람들은 총각이 먼저 달을 보며 보름달같이 환하게 생긴 마음 썩고운 처녀에게 장가를 들게 되고 갓 시집을 선택시가 먼저 달을 보며 띠줄같은 아들을 낳게 될것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래서 옛날부터 달맞이를 할 때에는 흔히 그들에게 달을 먼저 볼수 있도록 알자리를 양보 해주곤 하였다.

정월대보름날 우리 인민들은 여러가지 특색있는 명절음식을

먹는다는 아름다운 밤이라는 의미에서 《미환》이라고도 하였다.

9가지 마른나물반찬은 무우 잎, 버섯, 고사리, 고비, 가지, 달걀 등 가지각색의 채소를 섞어서 만든 음식이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정월대보름날에 마른나물을 먹어야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해동안 산나물과 담배, 바다나물을 잘 말려뒀어 보관해두었다가 정월대보름날 음식을 만들어먹는것을 관습으로 여기였다.

복쌈은 남새 잎이나 김 등으로 밥을 싸서 먹는것으로 해서 새해에도 복이 차재지를 바라는데서 생긴 풍습이었다.

우리 인민들은 또한 다채로운 민속놀이로 정월대보름날을 즐겁게 보내곤 하였다.

마을사람들의 단합된 힘을 시위하는 바줄당기기, 논밭이나 최록의 목은 풀에 불을 놓아 해로운 벌레알이나 잡곤들을 태워 버리는 쥐불놀이, 어린이들의 연피우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명절분위기를 돋구었다.

오랜 력사를 가진 정월대보름명절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더 활짝 꽃피우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뜻깊은 명절로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리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술을 구워 일상생활에 널리 이용한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이다.

술은 나무와 그 부산물을 리용하여 만든 고체연료를 말한다. 사람들은 불을 발견한 때로부터 열의 원천으로 나무를 많이 리용하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나무로 만든 숯이 얻어지게 되고 발령된 숯이 이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숯을 만들어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술과 우리의 생활

참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이빨나무, 가문비나무, 버드나무, 오통나무 등으로 술을 만들었다. 금, 은, 철기 등을 만들어내는 데는 버드나무, 동백나무, 무뎌 등으로 만든 숯이 사용되었고 난방용으로는 오통나무나 물푸레나무로 만든 숯이, 금속제련에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든 숯이 많이 리용되었다.

술에는 흑탄과 백탄이 있다.

흑탄은 600~700℃로 정련한 뒤 천천히 식힌 것을 말하며 백탄은 800~1300℃의 높은 온도로 정련한 뒤 꺼내어 흙, 재 등을 혼합한것을 덮어 빠른 속도로 불기를 꺼버린 것을 말한다.

숯은 숯가마를 리용하지 않고도 만들수 있지만 대체로 공기가 차가운 숯가마에서 구워낸다.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목재건류에서 공업적으로 술을 대량생산하고있다.

숯은 공기속에서 수분, 산소 등을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숯은 활성탄, 이화탄산, 사염화탄소 등을 만드는 원료로도 쓰이고 난방재, 철로명화재, 용착재, 식료 및 일용공업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흡수제로 쓰이며 자동차의 대용연료로도 쓰인다.

사회과학원 민족학연구소 김지원

신심과 락관에 넘쳐

평양 일용품 공장에서

몇해전까지만 해도 까마득 하게 보이던 공장적인 락구 명수들이 저번, 기사장과도 당당히 겨룰수 있을만큼 많은 종업원들이 평시에 이 악하게 연마하는 기술들을 남김없이 발휘한 락구경기는 이번 이체로운 평양을 펼쳐놓았다.

이번 체육경기에서 절정을 이룬것은 평명당일들의 남자 배구결승경기였다.

실력이 약한 락이라는 이전의 평가를 뒤집어줌으로써 박박직장이 주력을 이룬 락이 결승경기에 올라온것도 놀라웠지만 이 락이 지난해 뜻깊은 12월 24일을 맞으며 진행 된 배구경기에서 첫취리를 차지하였던 상대팀을 이기고 단연 우승한것은 더욱 놀라운것이였다.

공장직맹일군인 리팔일동무는 말하였다.

“이번 경기경과는 메사로운 것입니다. 비록 아쉽게 지기는 하였지만 상대팀도 지난해 시기 공장적인 락경기를 누르고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던 팀입니다. 앞으로 순위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장 직맹일들의 체육열의와 승병정신이 만만치 않습니다. 체육활동에서도 일용품생산에서도 컷지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열망이요 드립없는 결심입니다.”

당, 행정책임일군들부터가 앞장서서 체육수업을 힘있게 내밀고 또 모범체육단 위정취운동들을 즐기차게 벌리는 과정에 끊임없이 높아만 간다는 대중의 열의로 하여 앞으로의 경기순위를 예측할수 없는것이 공장의 현실이다.

그와 더불어 청춘의 기백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보람찬 일터, 절세의 위인들의 영도사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영평의 일터에서 새겨져오던 어떤 놀라운 혁신적생산성과 기록되었는가 하는것도 예측할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메아리만큼은 정경히 들린다.

“취후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 펼쳐주신 선군문화의 대혁명속에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루정과 생활의 람단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명의 불길처럼 강성대국의 대문을 환희롭게 열어제기는 승리의 컷지리에 당당히 들어 서고야말 공장로동계급의 심장의 뛰임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봄철나무심기를 잘 하려면

식수질이 다가오고있다. 우리는 뜻깊은 이날을 계기로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나무심기가 심지로 조국과 민족의 부강 번영에 이바지하게 하며 전국에 용재림, 섬유림, 유지림, 식용매나무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 후대들에게 수림이 우거지고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편된 조국산천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 데서 봄철나무심기가 가지게 의의와 중요성을 독특하고 나무심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한그루의 나무라도 과학기술적으로 더 많이 심어야 한다.

지배별, 필지별에 따라 수종이 좋은 나무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심어야 한다.

지대마다 자연기후조건이 차이나고 지역마다 땅속의 물기, 영양, 통기조건이 서로 다르

수중에 따라 빛에 대한 요구조건도 각이하다. 그러므로 자기 지방의 기후풍토조건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대 기초하여 생산성이 높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선택하여 심어야 한다.

수삼나무, 오통나무와 빨리 자라고 경제적가치가 좋은 보뿌라나무종류들은 좋은 땅에 심으며 창성이잘나무같은 것은 중간정도의 땅에 심는다.

비라나무, 밤나무와 같은 수종들은 척박한 땅에 심는 원칙에서 나무심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작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무심기적기는 땅이 녹는시기와 나무모가 올르는시기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구덩이에 흙을 채워넣을 때에는 원레보다 2~3cm정도 더 올라오게 한다.

새로 심은 나무모 주변에 나무일이나 넙적한 돌들을 덮어주면 땅속물기가 날아나는 것을 막아 사물을 높일수 있다.

나무모를 다 심은 다음에는 죽지 않도록 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나무심기에서 과학기술적으로 잘 지켜야 한다.

충실한 나무모를 골라 잔뿌리가 적사판정을 받아 말라 죽지 않도록 뿌리에 진흙을 바르고 잘 포장하여 실을 장소까지 정히 운반하여야 한다.

구덩이는 보통 60x60x50cm정도의 크기로 파는것이 좋다. 이때 결충흙과 속흙을 따로 무쳐놓았다가 구덩이가 다 파면 맨 밑에 거름기를 깔고 결충흙과 부식토를 먼저 깔아준다.

여기에 나무모의 뿌리를 고무 퍼서 놓고 흙을 5cm정도 덮은 다음 뿌리가 제대로 퍼지도록 위로 약간 들어주면서 잘 밟아주어야 한다. 구덩이에 흙을 채워넣을 때에는 원레보다 2~3cm정도 더 올라오게 한다.

새로 심은 나무모 주변에 나무일이나 넙적한 돌들을 덮어주면 땅속물기가 날아나는 것을 막아 사물을 높일수 있다.

나무모를 다 심은 다음에는 죽지 않도록 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명절은 보통 윤력으로 1월 1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날은 《작은 보름》이라고 하고 다음날은 《대보름》이라고 하였다.

정월대보름명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들은 새해의 행운과 풍작을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반영하여 여러가지 의례행사를 진행하곤 하였다.

대표적인것들로서는 집집마다 버, 기상, 조를 비롯한 난달이삭 등을 창대에 달아매어 마당에 세워놓는 《달기래세우기》, 녀인들이 새벽 일찍기 우물물을 길어오는 《풍알뜨기》 등을 들수 있다.

정월대보름명절에 특별히 이체를 띤것은 달맞이었다. 평안같은 동근달을 먼저 보는 사람에게 그해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대보름날이면 남녘로 소 활졌없이 앞을 다루어 달맞이에 떨쳐나서곤 하였다. 집주

면의 산이나 다리, 언덕, 루정 등에서 달맞이를 하면서 사람들은 총각이 먼저 달을 보며 보름달같이 환하게 생긴 마음 썩고운 처녀에게 장가를 들게 되고 갓 시집을 선택시가 먼저 달을 보며 띠줄같은 아들을 낳게 될것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그래서 옛날부터 달맞이를 할 때에는 흔히 그들에게 달을 먼저 볼수 있도록 알자리를 양보 해주곤 하였다.

정월대보름날 우리 인민들은 여러가지 특색있는 명절음식을



얼음조각 <2월의 달밤에 아름다운 빛을 뿌리는 얼음수정다리> 백두산천지산전예때 뒤로는 얼음돛가에서 기쁨을 넘쳐있는 참관자들

총련기자, 언론인대표단이 떠나갔다

전국기자, 언론인대회에 참가는 총련기자, 언론인대표단이 가하러던 양인원 총련 조선 이 27일 비행기로 평양을 통진사 사장을 단장으로 하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판계부

세계보건기구 보조총국장도 떠나갔다

에리크 라르세 세계보건기구 보조총국장도 27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판계부

로씨야방문 의무성대표단 출발

공적수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의무성대표단이 조야를 방문 하였다.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 귀국

비행장에서 판계부문 일군 파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별전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평양역에서 판계부문 일군 파 주조 로씨야방문 특별전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평양역에서 판계부문 일군 파 주조 로씨야방문 특별전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통일의 길에 새겨진 숭고한 민족애와 덕망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민족대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6.15 통일시대의 종국적 숙제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단초이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자주통일운동사를 통하여 온 겨레가 심장으로 새겨진 고귀한 경험이고 진리이다.

6.15 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즈음하여 력사의 분수령에서 해내의 온 겨레는 공동선언이 열어준 길을 따라 남북화해와 협력사업을 다그쳐 온 지난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숭고한 인덕과 광복정치를 전민족적 화해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가 김정일장군에게 드린 감사의 인사를 돌리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온 겨레를 한몸에 안아주시는 민족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6.15 통일시대의 위대한 데려우신이다.

위대한 령도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민족적 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공산당이건 협력상층이었던 판까지 없애고 함께 손잡고나설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대에 이어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20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제시하시었다. 하여 조국통일운동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전민족적 단합의 새시대, 6.15 통일시대를 펼쳐주시었다.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단합과 통일의 넓은 길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광복정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치려는 사람

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몸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나라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광복정치의 원천이며 출발점이다.

전체의 위인의 광복정치의 빛바래 불멸의 위인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장군님의 덕을 따라 민족을 남긴 사람들은 과연 그 얼마이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광복정지, 통일애국의 뜻을 따라 민족을 위한 길, 남북협력의 길에 파과같이 나서 6.15 통일시대에 삶의 자욱을 남긴 해외동포들속에 남조선의 현대사 문명예외장이었던 정주영선생도 있었다.

그의 인생말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덕정치, 광복정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위대한 정치를 알아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이 바치는 빛이 얼마나 값 높을 것인가를 오히려 더 실증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적 단합과 협력을 이룩하시었다. 6.15 통일시대의 빛바래진 조국 통일이 발효된 직후 당시 남조선의 현대사 문명예외장 정주영선생도 있었다.

정주영선생으로 말하면 이미 두렵던 조국의 현대사 문명예외장 정주영선생도 있었다. 그의 인생말년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덕정치, 광복정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위대한 정치를 알아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이 바치는 빛이 얼마나 값 높을 것인가를 오히려 더 실증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적 단합과 협력을 이룩하시었다. 6.15 통일시대의 빛바래진 조국 통일이 발효된 직후 당시 남조선의 현대사 문명예외장 정주영선생도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적 단합과 협력을 이룩하시었다. 6.15 통일시대의 빛바래진 조국 통일이 발효된 직후 당시 남조선의 현대사 문명예외장 정주영선생도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한강에서 하나의 피조를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화목하게 살아온 지혜롭고 애국심이 높은 민족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우수한 과학기술유산들은 오랜 력사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야금기술도 있다.

삼기동 고구려의 우리 선조들은 국가성립이전 시기인 B.C. 4000년기 후반기에 벌써 청동야금기술을 상당한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당시 청동제품들은 도끼, 단검, 활촉, 말 등의 무기류, 로동도구, 파이프, 커질, 안동 추 지레기에 이르기까지 그 가지수와 형태가 다양하였다.

고조선의 건국후 청동야금기술은 더욱 발전하였는데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그 이전의 3천소함금(동-석-연) 기술을 계승하면서 도제의 용도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합금 비율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하여 활용하였다.

B.C. 2000년기 말엽부터 고조선에서는 철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게 되면서 철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게 되면서 철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적 단합과 협력을 이룩하시었다. 6.15 통일시대의 빛바래진 조국 통일이 발효된 직후 당시 남조선의 현대사 문명예외장 정주영선생도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적 단합과 협력을 이룩하시었다. 6.15 통일시대의 빛바래진 조국 통일이 발효된 직후 당시 남조선의 현대사 문명예외장 정주영선생도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적 단합과 협력을 이룩하시었다. 6.15 통일시대의 빛바래진 조국 통일이 발효된 직후 당시 남조선의 현대사 문명예외장 정주영선생도 있었다.

우리의 겨레가 안겨주었던 영광의 빛

태양의 빛바라 만민을 품어주고 보살피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뜻을 찾아 남북인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붙잡히 달라고 했다.

어느 한 회사의 김광홍씨는 인민의 천만가지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공화국의 현실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은 민중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이다. 이북인민들의 애민정치를 펴시는 분이 바로 국제사회에 명성이 높으신 김정일동지이다. 평생을 민중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북인민들의 애민정치를 펴시는 분이 바로 국제사회에 명성이 높으신 김정일동지이다. 평생을 민중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북인민들의 애민정치를 펴시는 분이 바로 국제사회에 명성이 높으신 김정일동지이다. 평생을 민중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김정일동지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우리는 민족적 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공산당이건 협력상층이었던 판까지 없애고 함께 손잡고나설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광복정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치려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몸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전체의 위인의 광복정치의 빛바래 불멸의 위인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장군님의 덕을 따라 민족을 남긴 사람들은 과연 그 얼마이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광복정지, 통일애국의 뜻을 따라 민족을 위한 길, 남북협력의 길에 파과같이 나서 6.15 통일시대에 삶의 자욱을 남긴 해외동포들속에 남조선의 현대사 문명예외장이었던 정주영선생도 있었다.

남녘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

결대적인 숭앙심. 그분께서 정사를 펴시는 이북사회에 대한 끝없는 동경, 그것이야말로 경향의 민심이고 우리 이남인민들의 마음이다.

서울에 사는 김성철은 한 신문사에 투고한 글에서 《민족의 태양에 대한 우리 겨레의 추앙심, 그것은 백사에서 전무후무한 인간사랑의 화신인 장군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인간적품성이 집점으로 갈수록 커져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인》이라고 썼다.

남녘인민들의 이 뜨거운 심정은 《우리모두 개개인이나 하나의 작은 내내에 대해 할 때 그 마음이 흘러가 안기는 곳이 바로 김정일장군님의 바다와 같은 넓은 품》이라고 트로한 서울의 한 대학교수와 《나의 마음은 자녀께나 누 평양에 갔으며 장군님 품에 안길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고 말한 남조선장군도 고성의 한 어린그리고 노래 《그분밖에 우린 몰라》를 즐겨부르는 대학생들의 심정속에도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광복정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치려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몸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전체의 위인의 광복정치의 빛바래 불멸의 위인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장군님의 덕을 따라 민족을 남긴 사람들은 과연 그 얼마이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광복정지, 통일애국의 뜻을 따라 민족을 위한 길, 남북협력의 길에 파과같이 나서 6.15 통일시대에 삶의 자욱을 남긴 해외동포들속에 남조선의 현대사 문명예외장이었던 정주영선생도 있었다.

결대적인 숭앙심. 그분께서 정사를 펴시는 이북사회에 대한 끝없는 동경, 그것이야말로 경향의 민심이고 우리 이남인민들의 마음이다.

서울에 사는 김성철은 한 신문사에 투고한 글에서 《민족의 태양에 대한 우리 겨레의 추앙심, 그것은 백사에서 전무후무한 인간사랑의 화신인 장군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인간적품성이 집점으로 갈수록 커져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인》이라고 썼다.

남녘인민들의 이 뜨거운 심정은 《우리모두 개개인이나 하나의 작은 내내에 대해 할 때 그 마음이 흘러가 안기는 곳이 바로 김정일장군님의 바다와 같은 넓은 품》이라고 트로한 서울의 한 대학교수와 《나의 마음은 자녀께나 누 평양에 갔으며 장군님 품에 안길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다.》고 말한 남조선장군도 고성의 한 어린그리고 노래 《그분밖에 우린 몰라》를 즐겨부르는 대학생들의 심정속에도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북남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

남조선의 《남북경협상설기구 위원회》가 평화통일시대 민족대단합을 위한 시민주권단체들이 23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당국의 남북화해정책을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현 《정부》의 집권 2년간은 친미사대와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매달려 남

북사이의 협력과 교류사업을 차단해 온 나날이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비핵, 개방, 3000》과 《실용주의》를 운운하며 남북공동선언의 리행을 거부하고 북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고집해왔다고 단죄하였다.

이 모든것은 당국의 맹진적

적대적인 관점으로부러 출발했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현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어떤 변화는 한마디로 《민주화의 전진배후퇴》로 특징지어진다고 비난하였다.

각계 민중들에게 백서의 내용을 알리주며 현 《정부》가 저지르는 잘못의 모든 죄악들도 영원한 기록으로 남길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이동통신, 방송, 교통,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특히 고속도로, 지하철, 아파트, 컴퓨터 등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는 민족적 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공산당이건 협력상층이었던 판까지 없애고 함께 손잡고나설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광복정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치려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몸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야금기술

우리는 민족적 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공산당이건 협력상층이었던 판까지 없애고 함께 손잡고나설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광복정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치려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몸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전체의 위인의 광복정치의 빛바래 불멸의 위인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장군님의 덕을 따라 민족을 남긴 사람들은 과연 그 얼마이던가.

우리는 민족적 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공산당이건 협력상층이었던 판까지 없애고 함께 손잡고나설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광복정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치려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몸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전체의 위인의 광복정치의 빛바래 불멸의 위인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장군님의 덕을 따라 민족을 남긴 사람들은 과연 그 얼마이던가.

우리는 민족적 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공산당이건 협력상층이었던 판까지 없애고 함께 손잡고나설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광복정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치려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몸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전체의 위인의 광복정치의 빛바래 불멸의 위인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장군님의 덕을 따라 민족을 남긴 사람들은 과연 그 얼마이던가.

무릉도원으로 변모되는 자랑많은 고장

안면! 그 아들을 보아도 정신이 번쩍 든다. 남천강의 《일심다리》에서부터 넓고 시원하게 뻗어나간 도교와 새로 건설, 보수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이 우리 인민의 광장에 바른 여자기색의 외양을 띤 모습. 커리의 풍치를 뽐내는 가로수들이 어찌물결이 아니라 자랑척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빛쟁반 전신시찰의 길에서 일선민 안면군 소재지의 모습을 보시고 큰 도시보다 더 잘 보셨다고, 도시경영사업에서 제일이라고, 아베르도리가 꽃같이 화려하다는 풍자가 풍자하고 하시며 군일군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제손으로 재고장을 꾸며갈 때 어디서나 사회주의성을 펼쳐 놓으셨다는 귀중한 진리를 보여준 안면사람들.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계속적인, 계속적인 하는 고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기풍과 일본제를 무너뜨린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으로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는 지방공업공장들과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더욱 뜨겁게 걸맞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에 대한 확신, 재함을 믿고 떨치지 않되 못없는 일이 없다는 태도를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습, 우리의 자원으로 대외적의 진적로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군당위원회 한 일군의 인내를 받으며 일용품공장에 있었을 때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구호가 한눈에 안겨왔다.

《저 구호에 우리 종업원들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배인 리연속동무가 하는 말이었다. 공장은 규모도 작았고 로력도 많지 않았다. 처음 공장을 개건하자고 결심했을 때 머리를 짓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그들은 주춤거리거나 일이 힘들다고 멈춰서지 않았다. 힘의 체함을 믿고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힘으로 이룩한 공장을 보았다. 처음 공장을 개건하자고 결심했을 때 머리를 짓는 사람들도 없었지만 그들은 주춤거리거나 일이 힘들다고 멈춰서지 않았다. 힘의 체함을 믿고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힘으로 이룩한 공장을 보았다.

우리는 민족적 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공산당이건 협력상층이었던 판까지 없애고 함께 손잡고나설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광복정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치려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몸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안면 군을 돌아 보고

안면! 그 아들을 보아도 정신이 번쩍 든다. 남천강의 《일심다리》에서부터 넓고 시원하게 뻗어나간 도교와 새로 건설, 보수된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이 우리 인민의 광장에 바른 여자기색의 외양을 띤 모습. 커리의 풍치를 뽐내는 가로수들이 어찌물결이 아니라 자랑척도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빛쟁반 전신시찰의 길에서 일선민 안면군 소재지의 모습을 보시고 큰 도시보다 더 잘 보셨다고, 도시경영사업에서 제일이라고, 아베르도리가 꽃같이 화려하다는 풍자가 풍자하고 하시며 군일군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제손으로 재고장을 꾸며갈 때 어디서나 사회주의성을 펼쳐 놓으셨다는 귀중한 진리를 보여준 안면사람들.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계속적인, 계속적인 하는 고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 기풍과 일본제를 무너뜨린 공동사업과 공동투쟁으로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부글부글 끓고있는 지방공업공장들과 농장들을 돌아보면서 더욱 뜨겁게 걸맞았다.

먼거리의료봉사와 인민보건

우리는 민족적 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공산당이건 협력상층이었던 판까지 없애고 함께 손잡고나설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광복정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치려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몸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전체의 위인의 광복정치의 빛바래 불멸의 위인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장군님의 덕을 따라 민족을 남긴 사람들은 과연 그 얼마이던가.

우리는 민족적 관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공산당이건 협력상층이었던 판까지 없애고 함께 손잡고나설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광복정치는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한몸바치려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몸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에 내세워주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바쳐진 삶을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빛내여주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의 정치이다.

전체의 위인의 광복정치의 빛바래 불멸의 위인애와 민족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장군님의 덕을 따라 민족을 남긴 사람들은 과연 그 얼마이던가.

선군정치는 반제자주, 평화와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호하는 정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의 카라치와 라호르, 이탈리아의 로마, 인도의 뉴델리에서 경축집회, 도서, 사진전, 영화감상회 등 8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영도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파키스탄인민당 신드주위원회 총서기 라지 하이데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42년 2월 16일 백두산혈역에서 탄생하시어 항일의 총포성을 자랑처럼 들떠서 성장하셨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의 기상상

강조하셨다.

이탈리아어문법적전문가문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 미리암 벨레그리니 페리는 자주와 진보,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은 조선혁명을 인류사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려선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임을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제사상, 선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인류사상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시었으며 필승의 보검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건을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과 압박책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

국으로 일떠세우셨다.

선군정치는 반제자주, 평화와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수호하는 정치이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근대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우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임을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굳게 다지고있다. 《강성대국의 불보라》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파키스탄의 카라치와 라호르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올려서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도전을 물리치며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놓는데 대하여 열거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보통의 상식이나 논리로 보아도 실명하기 어렵다.

오직 조선에만 있는 특수한 위험, 조선인민의 정신력으로만 실행할 수 있는것이다.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붙여두고 해침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의 투철한 자주정신, 신념과 의지의 힘, 바로 이것이 조선인민의 정신력이다.

신문은 우리 근대의 인민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메히고, 브라질, 벨라리아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시회를 5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전람회장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 주는 사진들 그리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수리아의무성이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심히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티나지역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수리아는 이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수리아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반대한다. 수리아는 이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수리아는 이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스라엘의 처사를 비난

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티나지역을 그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수리아는 이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수리아는 이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수리아는 이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생활지 지 개선을 위한 투쟁

파업

시위참가자들은 나라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로 근로자들의 생활처지가 악화되고있는 데 대해 우리의 투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근로자들의 호소에 따라 일어난 파업에는 많은 비행사들이 참가하였다. 파업으로 비행기 운항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월간국제정세개관

규탄배격받는 부당한 내정간섭책동

자주권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권을 잃은 나라는 사실상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나라의 인민은 죽은 육신이나 다름없다.

아프리카 및 아랍나라들의 농업부문 협조 노력

아프리카 및 아랍나라들이 14일부터 16일까지 에집트에서 농업상호협력과 농민협력사업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 농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미공동전 쟁연습소동

일본 오카야마현의 니호하라 연습장에서 21일 일미공동전 쟁연습이 시작되었다.

벨스까의 작곡가 쇼팽

세계음악계에 널리 알려진 쇼팽, 프리데리크 프란체세프는 벨스까의 이름없는 작곡가이며 피아노 연주자이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파키스탄의 카라치와 라호르, 이탈리아의 로마, 인도의 뉴델리에서 경축집회, 도서, 사진전, 영화감상회 등 8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영도업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어있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파키스탄인민당 신드주위원회 총서기 라지 하이데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42년 2월 16일 백두산혈역에서 탄생하시어 항일의 총포성을 자랑처럼 들떠서 성장하셨다.

그이께서는 백두산의 기상상

어버이사랑속에 영생하는 혁명렬사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혁명렬사들의 지신위대한 수명님께 새겨진 영웅적 행적들을 보며 가슴이 떨리고 있다. 이들은 장군님께서 혁명렬사들에게 베풀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아상 라오리 라오인민혁명당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대성산 혁명렬사릉은 절세위인들의 동지애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참으로 의고로 고신분들이시다.

그들께서는 동지들을 무한히 아끼고 내세우셨다.

혁명렬사들은 그 영웅을 깊이 아끼고 그 당과 혁명, 집권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속에 혁명렬사들은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렬사릉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 기여하고있다.

일미공동전 쟁연습소동

일본 오카야마현의 니호하라 연습장에서 21일 일미공동전 쟁연습이 시작되었다.

3월 7일까지 벌어지게 될 이번 공동연습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와 일본복합

벨스까의 작곡가 쇼팽

세계음악계에 널리 알려진 쇼팽, 프리데리크 프란체세프는 벨스까의 이름없는 작곡가이며 피아노 연주자이다. 1810년 와르사와프의에서 벨스까에 이주한 프랑스인인 아버지 니콜라 쇼팽과 벨스까인인 어머니 유스카와 프야노호스트의 딸이들로 태어났다.

4살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1817년에 첫 작품인 폴로네즈 《솔》 소조를 발표하고 8살에는 와르사에서 공개공연을 하여 신동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후 그의 사위음악원을 졸업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로 이민이었고 벨스까는 조국으로 간주하고 벨스까의 재정을 위한 혁명과 해방투쟁에 적극 참가한 애국자였다. 아버지와 그의 벗들의 혁명적 영향속에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지니게 된 쇼팽은 민족의 불행에 뼈 사부지치게 체험하면서 나라의 해방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살았다. 조국과 인연, 자기 나라의 민족음악을 열렬히 사랑한 쇼팽의 어머니는 납타른것이었다.

그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대한 여행을 하고있을 때 벨스까에서는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이 일어났다. 투쟁은 수개월간이나 계속되었으나 끝내 외세력자들에게 의하여 진압되었다. 이 비탄의 소식에 접한 쇼팽은 조국에 돌아가려고 않고 프랑스의 파리에 눌러앉았다.

파리에서 그는 당시 마차사의 이름없는 작곡가이며 피아노대가인 리스트, 도이힐란트의 작곡가 멘델손, 프랑스의 작곡가 베를리오즈 그리고 도이힐란트

7-010344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10일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민주공공신문 《라 브로스베리메》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사진들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정열에 넘치는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정열을 지니신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오신

워트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선거

우크라이나에서 워트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었다. 그는 최근에 다른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레바논 인민의 투쟁을 지지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최근 레바논에 국경 지역인 히즈볼라호 총비사와의 대화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레바논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은 과거의 오

가리브지역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호소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가 22일 가리브지역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호소하였다.

그는 메히고에서 진행되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회의에서 가리브지역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하고 오산간의 정치, 문화적연계를 강화하며 무역과 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브라질은 가리브지역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더 큰 힘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 나라는 특히 에네르기 분야에서 구비와외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킬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아프리카 및 아랍나라들의 농업부문 협조 노력

아프리카 및 아랍나라들이 14일부터 16일까지 에집트에서 농업상호협력과 농민협력사업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 농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미공동전 쟁연습소동

일본 오카야마현의 니호하라 연습장에서 21일 일미공동전 쟁연습이 시작되었다.

3월 7일까지 벌어지게 될 이번 공동연습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와 일본복합

벨스까의 작곡가 쇼팽

세계음악계에 널리 알려진 쇼팽, 프리데리크 프란체세프는 벨스까의 이름없는 작곡가이며 피아노 연주자이다. 1810년 와르사와프의에서 벨스까에 이주한 프랑스인인 아버지 니콜라 쇼팽과 벨스까인인 어머니 유스카와 프야노호스트의 딸이들로 태어났다.

4살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1817년에 첫 작품인 폴로네즈 《솔》 소조를 발표하고 8살에는 와르사에서 공개공연을 하여 신동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후 그의 사위음악원을 졸업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로 이민이었고 벨스까는 조국으로 간주하고 벨스까의 재정을 위한 혁명과 해방투쟁에 적극 참가한 애국자였다. 아버지와 그의 벗들의 혁명적 영향속에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지니게 된 쇼팽은 민족의 불행에 뼈 사부지치게 체험하면서 나라의 해방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살았다. 조국과 인연, 자기 나라의 민족음악을 열렬히 사랑한 쇼팽의 어머니는 납타른것이었다.

그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대한 여행을 하고있을 때 벨스까에서는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이 일어났다. 투쟁은 수개월간이나 계속되었으나 끝내 외세력자들에게 의하여 진압되었다. 이 비탄의 소식에 접한 쇼팽은 조국에 돌아가려고 않고 프랑스의 파리에 눌러앉았다.

파리에서 그는 당시 마차사의 이름없는 작곡가이며 피아노대가인 리스트, 도이힐란트의 작곡가 멘델손, 프랑스의 작곡가 베를리오즈 그리고 도이힐란트

7-010344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10일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민주공공신문 《라 브로스베리메》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사진들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정열에 넘치는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정열을 지니신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오신

워트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선거

우크라이나에서 워트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었다. 그는 최근에 다른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레바논 인민의 투쟁을 지지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최근 레바논에 국경 지역인 히즈볼라호 총비사와의 대화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레바논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은 과거의 오

가리브지역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호소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가 22일 가리브지역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호소하였다.

그는 메히고에서 진행되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회의에서 가리브지역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하고 오산간의 정치, 문화적연계를 강화하며 무역과 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브라질은 가리브지역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더 큰 힘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 나라는 특히 에네르기 분야에서 구비와외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킬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아프리카 및 아랍나라들의 농업부문 협조 노력

아프리카 및 아랍나라들이 14일부터 16일까지 에집트에서 농업상호협력과 농민협력사업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 농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미공동전 쟁연습소동

일본 오카야마현의 니호하라 연습장에서 21일 일미공동전 쟁연습이 시작되었다.

3월 7일까지 벌어지게 될 이번 공동연습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와 일본복합

벨스까의 작곡가 쇼팽

세계음악계에 널리 알려진 쇼팽, 프리데리크 프란체세프는 벨스까의 이름없는 작곡가이며 피아노 연주자이다. 1810년 와르사와프의에서 벨스까에 이주한 프랑스인인 아버지 니콜라 쇼팽과 벨스까인인 어머니 유스카와 프야노호스트의 딸이들로 태어났다.

4살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1817년에 첫 작품인 폴로네즈 《솔》 소조를 발표하고 8살에는 와르사에서 공개공연을 하여 신동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후 그의 사위음악원을 졸업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로 이민이었고 벨스까는 조국으로 간주하고 벨스까의 재정을 위한 혁명과 해방투쟁에 적극 참가한 애국자였다. 아버지와 그의 벗들의 혁명적 영향속에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지니게 된 쇼팽은 민족의 불행에 뼈 사부지치게 체험하면서 나라의 해방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살았다. 조국과 인연, 자기 나라의 민족음악을 열렬히 사랑한 쇼팽의 어머니는 납타른것이었다.

그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대한 여행을 하고있을 때 벨스까에서는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이 일어났다. 투쟁은 수개월간이나 계속되었으나 끝내 외세력들에게 의하여 진압되었다. 이 비탄의 소식에 접한 쇼팽은 조국에 돌아가려고 않고 프랑스의 파리에 눌러앉았다.

파리에서 그는 당시 마차사의 이름없는 작곡가이며 피아노대가인 리스트, 도이힐란트의 작곡가 멘델손, 프랑스의 작곡가 베를리오즈 그리고 도이힐란트

7-010344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10일 여러 나라 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민주공공신문 《라 브로스베리메》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사진들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정열에 넘치는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정열을 지니신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오신

워트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선거

우크라이나에서 워트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었다. 그는 최근에 다른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레바논 인민의 투쟁을 지지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최근 레바논에 국경 지역인 히즈볼라호 총비사와의 대화에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레바논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은 과거의 오

가리브지역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호소

브라질대통령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가 22일 가리브지역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호소하였다.

그는 메히고에서 진행되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회의에서 가리브지역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하고 오산간의 정치, 문화적연계를 강화하며 무역과 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브라질은 가리브지역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더 큰 힘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 나라는 특히 에네르기 분야에서 구비와외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킬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아프리카 및 아랍나라들의 농업부문 협조 노력

아프리카 및 아랍나라들이 14일부터 16일까지 에집트에서 농업상호협력과 농민협력사업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 농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미공동전 쟁연습소동

일본 오카야마현의 니호하라 연습장에서 21일 일미공동전 쟁연습이 시작되었다.

3월 7일까지 벌어지게 될 이번 공동연습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와 일본복합

벨스까의 작곡가 쇼팽

세계음악계에 널리 알려진 쇼팽, 프리데리크 프란체세프는 벨스까의 이름없는 작곡가이며 피아노 연주자이다. 1810년 와르사와프의에서 벨스까에 이주한 프랑스인인 아버지 니콜라 쇼팽과 벨스까인인 어머니 유스카와 프야노호스트의 딸이들로 태어났다.

4살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1817년에 첫 작품인 폴로네즈 《솔》 소조를 발표하고 8살에는 와르사에서 공개공연을 하여 신동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후 그의 사위음악원을 졸업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로 이민이었고 벨스까는 조국으로 간주하고 벨스까의 재정을 위한 혁명과 해방투쟁에 적극 참가한 애국자였다. 아버지와 그의 벗들의 혁명적 영향속에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을 지니게 된 쇼팽은 민족의 불행에 뼈 사부지치게 체험하면서 나라의 해방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살았다. 조국과 인연, 자기 나라의 민족음악을 열렬히 사랑한 쇼팽의 어머니는 납타른것이었다.

그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대한 여행을 하고있을 때 벨스까에서는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이 일어났다. 투쟁은 수개월간이나 계속되었으나 끝내 외세력들에게 의하여 진압되었다. 이 비탄의 소식에 접한 쇼팽은 조국에 돌아가려고 않고 프랑스의 파리에 눌러앉았다.

파리에서 그는 당시 마차사의 이름없는 작곡가이며 피아노대가인 리스트, 도이힐란트의 작곡가 멘델손, 프랑스의 작곡가 베를리오즈 그리고 도이힐란트

7-010344 (정기간행물번호) (정기간행물발송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정기간행물등록번호)